

## <월인천강지곡>에 대하여

조홍욱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1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세종이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지은 시가(詩歌)이다. 세종 28년 3월 왕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가 승하하자 세종은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하여금 석가(釋迦)의 전기(傳記)를 엮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편찬하게 하였다. 그리고 석보상절이 완성되자 이를 보고 석가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가 바로 월인천강지곡이다.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제목은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합본 형태로 이루어진 월인석보(月印釋譜)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그것이 석가의 중생교화를 달이 모든 강에 비추는 것에 비유하여 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부테 百億世界에 化身호야 教化호샤미 드리 즘은 ㄹ르매 비취요미 곱흐니라

이처럼 세종 때 이루어진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 창제 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한글 문헌의 하나이다. 따라서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언어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15세기 국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어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더불어 악장을 대표하는 시가 작품이다. 따라서 당연히 월인천강지곡은 악장 시가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달리 그 내용이 석가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이어서 배불승유(排佛崇儒)를 내세웠던 당시의 시대 이념과는 다른 노래였다. 따라서 월인천강지곡은 편찬에서부터 전승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내용을 당대의 문헌 자료를 통해서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세종 14년 5월 12일의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를 통해 월인천강지곡이 편찬 이후 꾸준히 궁중 음악으로서 향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이 은정전(恩政殿)에 나아가 종친(宗親)·재신(宰臣)·제장(諸將)과 담론하며 각각 술을 올리게 하고, 또 영순군(永順君) 부(溥)에게 명하여 8기(妓)에게 인문 가사를 주어 부르도록 하니, 곧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이었다.

## 2

월인천강지곡의 편찬과 관련된 사항은 그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불교를 배척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적 내용의 서적이 공적(公的)으로 간행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불교적 내용의 문헌 간행은 그것이 비록 사적(私的)인 출판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았음은 세종 28년 3월 26일의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 지금 중궁(中宮)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들이 그를 위하여 불경(佛經)을 만들라 하므로, 내가 이를 허락하고 정부에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옳습니다.’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공적으로 출판(出辦)할 수는 없으나, 아이들의 사사 저축과 본궁(本宮)의 저축된 것으로 이를 하려고 한다. 또한 동궁

(東宮)은 책임이 중(重)하므로 이미 대군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했는데,……”하니, 여러 승지들이 모두 아뢰기를, “…… 부처가 만약 영험이 있다면 반드시 감통(感通)한 점이 있었을 것이운데, 지금에 와서도 더욱 거짓만 더하게 되니 믿을 것이 못됩니다. 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심하게 되오니, 원하옵건대, 이를 허락지 마옵소서.”하다.

불경의 출판에 임금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적인 비용으로 처리하지도 않겠다고 했음에도 신하들의 반대 의견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의 편찬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인천강지곡의 편찬 경위에 대한 관련 기록을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월인천강지곡의 편찬과 관련된 사항은 일정 부분 추정의 단계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월인천강지곡은 원래 모두 580여 장의 노래가 수록된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권 상(上)이 진기홍(陳琪洪) 소장본으로 전하고 있으며, 권 상과 권 중(中)의 낙장이 국립도서관 소장 교정본 석보상절에 끼어 전한다. 현재 전하고 있는 월인천강지곡 상(上)은 모두 19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월인석보를 통해서도 월인천강지곡을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다.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편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전하고 있는 월인석보의 권들을 통해서 월인천강지곡 상(上)에 전하는 194개의 장 이외의 노래들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발견된 월인석보 권 25는 월인석보의 마지막 권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월인천강지곡 其583이 끝 부분에 실려 있다. 이를 통해서 월인천강지곡은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진 총 583장의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진 노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월인천강지곡의 편찬 경위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살피기 어렵지만, 월인석보 서(序)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편찬 경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의 언해문을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옛날 병인(丙寅)년(1446)에 소현왕후가 빨리 돌아가셔서 설움과 슬픔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세종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추천이 전경(轉經) 같은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釋譜)을 만들어 번역함이 마땅하니라.”

하셨다. 내가 자명(慈命)을 받들어 생각함을 넓게 하여 남제(南齊)의 승우(僧祐)와 당(唐)의 도선(道宣) 두 율사(律師)가 저마다 만든 보(譜)가 있어 이를 얻어 보니 상략(詳略)이 같지 아니하였다. 두 책을 합쳐 석보상절을 만들어 이루고 이를 정음으로 번역하여 사람마다 쉽게 알게 하여 진상하였더니 보시고 곧 찬송을 지으시되 이름을 월인천강지곡이라 하시니, ……

이 글을 통해서 월인천강지곡은 완성된 석보상절을 보고 세종이 바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석보상절의 편찬은 세종 29년 7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월인천강지곡의 편찬자는 세종이며, 편찬연대는 석보상절의 편찬연대와 비슷한 세종 29년인 1447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세종이 지었다는 ‘세종어제(世宗御製)’의 의미를 세종이 친히 지었다는 친제(親製)의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세종의 주관하에 월인천강지곡의 편찬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세종의 어의(御意)를 받들어 실제로 편찬을 도운 인물로 불교에 이해가 깊은 김수온(金守溫)과 같은 유학자 계층이나 불교 중흥을 서원(誓願)하는 승려 계층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후 간행된 가장 오래된 문헌이기 때문에 어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월인천강지곡에 나타난 표기 형태는 당대의 문헌들과 다른 독특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월인천강지곡에 나타난 중요한 표기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 표기에 있어서 한글음 앞세움 표기를 하였다. 보통 당시의 문헌들은 한자를 큰 글자로 먼저 쓰고 한글음을 그 다음에 작게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월인천강지곡은 이와 달리 다음 제 1장처럼 한글음을 먼저 큰 글자로 표기하고 다음에 그 한자를 작게 표기하고 있다.

끼其힘一

외巍외巍석釋가迦뽕佛무無량量무無변邊공功득德을겁劫겁劫에어  
느다술俗리

이러한 한글음을 앞세우는 표기 형태는 노래의 독자층을 일반 서민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말로 노래해야 하는 노래의 노래말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러한 표기는 한글 중심 문자 생활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 받침이 없는 한자음의 표기에 ‘ㅇ’을 붙이지 않았다. 보통 당시의 문헌들은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 받침이 없는 한자음에도 반드시 받침으로 ‘ㅇ’을 붙이는 표기 방식, 다시 말해서 한자음 표기에는 반드시 초성·중성·종성을 갖추어 표기하는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월인천강지곡은 다음 제 2장의 예처럼 받침이 없는 한자음 표기에 ‘ㅇ’을 붙이지 않는 당대의 문헌과는 다른 특이한 표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자와 한글음의 글자 크기를 같게 하여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세世존尊스 일 술보리니 만萬리리 외外스 일이시나 눈에 보논가 너기스뵈쇼셔  
세世존尊스 말 술보리니 천千지載 쌍上스 말이시나 귀에 듣논가 너기스뵈쇼셔  
(其 2)

이러한 표기법은 앞에서 지적했던 한글 앞세움 표기와 함께 당시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 따라서 받침없는 한자음에 ‘ㅇ’을 붙이지 않는 표기 형태는 한자음 표기에서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벗어난 월인천강지

곡 특유의 표기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셋째, 어원을 의식하여 기본형을 밝히는 표기를 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어간과 복합어 등의 표기에서 기본형을 밝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받침 표기에 있어서는 8종성(終聲) 이외의 받침이 나타나는 ‘중성부용 초성(終聲復用初聲)’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기본형을 밝히는 표기 형태의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들<sup>ㄴ</sup>님 판<sup>ㅍ</sup>誕<sup>ㄴ</sup>生<sup>ㅇ</sup>호<sup>ㅎ</sup>시고 닐<sup>ㄴ</sup>웨 기<sup>ㄱ</sup>틀<sup>ㄹ</sup>씨 스<sup>ㅅ</sup>四<sup>ㅇ</sup>월<sup>ㄹ</sup>月<sup>ㅅ</sup> 보<sup>ㅍ</sup>름<sup>ㅁ</sup>에 텃<sup>ㅌ</sup>天<sup>ㅇ</sup>쌍<sup>ㅍ</sup>上<sup>ㅇ</sup>에 오<sup>ㅇ</sup>르<sup>ㄴ</sup>시<sup>ㅇ</sup>니  
(其 31, 뒤 행)

꽃 이<sup>ㅇ</sup>슬 저<sup>ㄴ</sup>즈<sup>ㄹ</sup>리<sup>ㅇ</sup>라 백<sup>ㅍ</sup>白<sup>ㅁ</sup>뫼<sup>ㅍ</sup>뫼<sup>ㅁ</sup> 백<sup>ㅍ</sup> 무<sup>ㅁ</sup>드<sup>ㄴ</sup>리<sup>ㅇ</sup>라 량<sup>ㄴ</sup>兩<sup>ㅇ</sup>뽀<sup>ㅍ</sup>分<sup>ㅇ</sup>이 갈<sup>ㄴ</sup>아 안<sup>ㅇ</sup>즈<sup>ㄴ</sup>시<sup>ㅇ</sup>니  
(其 42, 뒤 행)

이러한 표기법은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히는 표기 형태로서 오늘날 한글 맞춤법의 원리인 형태음소적 표기법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러한 표기법은 세종의 뛰어난 문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 4.1.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함께 악장 시가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월인천강지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 우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영웅서사시적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웅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웅서사문학은 보통 영웅의 일대기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유형에 의해 전개된다.

- 1)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 2) 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었다.
- 3) 어려서부터 비범했다.
- 4) 일찍 기아(棄兒)가 되거나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 5) 구출·양육자(救出養育者)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 6)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 7)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 구조는 월인천강지곡에서 노래되는 석가의 탄생과 출가(出家)·고행, 그리고 성도(成道)와 설법·교화로 이어지는 석가의 일대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월인천강지곡은 영웅서사시적 전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구체적 내용을 작품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한자 표기는 한글음은 쓰지 않고 한자만 쓰기로 하겠다.

衆生이 드톨씨 平等王을 세스븨니 瞿曇氏 그 姓이시니  
 겨지비 하라눌 尼樓 | 나가시니 釋迦氏 일로 나시니

(其 10)

이 사적은 석가의 조상이었던 구담씨가 평등왕이었고 이로부터 석가씨가 나왔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적은 석가의 조상이 왕족이었음을 노래하고 있어 영웅의 일대기 중에서 ‘고귀한 혈통’ 유형에 해당한다.

無憂樹入 가지 굽거늘 어마님 자비샤 右脇誕生이 四月八日이시니  
 蓮花入 고지 나거늘 世尊이 드되샤 四方 向흐샤 周行七步호시니

(其 19)

이 사적은 석가가 어머니인 마야부인(摩耶夫人)의 오른 쪽 겨드랑이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으로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적은 석가의 탄생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음을 노래하고 있어 영웅의 일대기 중에서 ‘비정상적 출생’ 유형에 해당한다.

蜜多羅는 두 글을 비화사 알씨 太子스기 말을 문 술븨니

太子는 여헌 네 글을 아니 비화 아리실씨 蜜多羅를 또 ㄱ르치시니  
(其 35)

이 사적은 석가가 태자 시절 64종류의 글을 알아 2종류의 글밖에 모르는 자기의 스승을 오히려 가르쳤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적은 석가의 학문적 능력이 탁월함을 노래하고 있어 영웅의 일대기 중에서 ‘탁월한 능력’ 유형에 해당한다.

十方世界 붉고 獅子聲入 말흐샤 城을 남아 山을 向흐시니  
四天王이 피습고 물 발을 諸天이 바다 虛空 ㅈ샤 山이 니르르시니  
(其 54)

雜草木 것거다가 ㄴ출 거우스본들 ㅈ습잇든 ㅈ우시리여  
흔날 ㅈ을 좌샤 슬히 여위신들 金色잇든 가시시리여  
(其 62)

이 사적은 석가가 왕궁을 떠나 출가하는 사실과 성도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찢리고 한 톨 쌀로 연명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을 견뎌내는 사실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적은 집을 떠나 육체적 고통을 겪는 석가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어 영웅의 일대기 중에서 ‘기아(棄兒)와 죽음’ 유형에 해당한다.

魔王이 말 재야 부텃기 나사드니 현날인들 迷惑 어느 플리  
부텃 智力으로 魔王이 업더디니 二月 八日에 正覺 일우시니  
(其 74)

이 사적은 석가가 갖은 마왕의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마왕을 굴복시키고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적은 출가 후 갖은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석가의 성도(成道)를 노래하고 있어 영웅의 일대기 중에서 ‘죽음의 극복’ 유형에 해당한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설법과 교화의 사적들은 영웅의 일대기 중에서 ‘자라서의 위기’와 ‘투쟁에서의 승리’ 유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사적들은 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교도(異教徒)들에게 설법하여 그들을 교화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교도들은 불법의 전파를 막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결은 ‘자라서의 위기’이고, 그들을 교화하여 불법의 세계로 귀의시키는 것은 ‘투쟁에서의 승리’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毒氣를 내니 고지 득외어늘 모딘 龍이 怒를 더하니  
불이 도라 디고 촌브롬 불어늘 모딘 龍이 怒를 그치니

(其 102)

千百億 變化 | 사 正道 | 노폭신들 아레브터 ㅁ슴에 아스보디  
제 道理 붓그리다가 一千 梵志 더블오 이날애사 머리 좃스븨니

(其 109)

앞의 사적은 석가가 신통력으로 이교도들과 맞서는 내용이고, 뒤의 사적은 그 이교도들이 석가의 능력에 굴복한다는 내용이다. 용이 뱉어내는 독기(毒氣)와 불에 맞서 석가가 그것들을 꽃으로 만들고 땅에 떨어지게 한다는 其 102의 내용은 영웅의 일대기 중에서 적과 투쟁해야 하는 ‘자라서의 위기’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수많은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어 결국은 그들은 굴복시킨다는 其 109의 내용은 ‘투쟁에서의 승리’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월인천강지곡의 이러한 서사시적 특성에서 흥미로운 것은 석가에 대한 인물 묘사가 자비(慈悲)의 불교적 인물로 그려지면서 동시에 문무를 겸비한 유교적 인물로도 함께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를 위하여 후사(後嗣)를 잇게 하려는 석가의 효심(孝心)과 28개의 북을 한 화살에 꿰뚫는 석가의 힘을 묘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예들은 석가가 오히려 문무를 겸비한 유교적 관점에서의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孝道호실 모습에 後사 날을 分別호샤 俱夷 비를 ㄱ르치시니  
(其 46, 앞 행)

神力이 이리 세실씨 혼변 쏘신 살이 네 널굽 부피 빼여디니  
(其 40, 앞 행)

이러한 인물 묘사는 월인천강지곡이 용비어천가에서 이루어진 영웅서사시적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겸비의 유교적 인간형이 불교적 인물인 석가의 모습으로 함께 묘사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의 영웅서사시적 전통을 석가의 전기(傳記)에 적용한 불교서사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2. 월인천강지곡은 흔히 용비어천가와 형식적 유사성이 지적된다.

따라서 월인천강지곡 역시 용비어천가처럼 1행 3음보율의 율격에서 1행 4음보율의 율격으로 변모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월인천강지곡의 율격적 특징은 한 행(行)을 단위로 해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노래 한 장(章)은 두 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앞 행과 뒤 행의 율격적 모습은 다음 예처럼 동일한 양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舍那身이 毘사 보비 옷 니브샤 頓敎를 ㄴ아라듣즈븨리  
丈六身이 毘사 현오슬 니브샤 漸敎를샤 다 아라듣즈븨니  
(其 97)

이처럼 한 장을 이루는 두 행이 동일한 율격적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편찬자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다음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도흔 곶 머근 머리는 일흠이 迦嚙茶 | 러니 世尊入 몸이 이 녀시러니  
모던 곶 머근 머리는 優婆迦嚙茶 | 러니 調達의 몸이 더 녀시러니

(其 136)

이 노래의 노래말은 앞 행과 뒤 행이 대구(對句)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대구의 방식으로 노래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뒤 행에 있는 ‘優婆迦嚙茶 | 러니’ 부분은 앞 행에 있는 ‘일흠이 迦嚙茶 | 러니’처럼 ‘일흠이 優婆迦嚙茶 | 러니’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노래말이 ‘일흠이’라는 어절이 빠진 ‘優婆迦嚙茶 | 러니’로 되어 있는 것은 앞 행과 뒤 행의 율격 형태를 동일하게 만들려고 했던 편찬자의 율격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일흠이 優婆迦嚙茶 | 러니’라고 하게 되면 앞 행보다 1음보가 늘어나게 되어 율격 형태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장을 이루고 있는 두 행은 그 율격적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월인천강지곡은 한 행을 단위로 해서 그 율격적 특징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의 한 행은 세 구(句)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제 1구와 제 2구는 대체로 2음보의 율격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 3구는 어느 한 음보율로 고정되지 않고 2음보·3음보·4음보가 두루 나타나는 다양한 율격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 구(句)에 나타나는 음보율의 특징을 개별 장(章)을 단위로 정리하면 한 행(行)에 나타나는 대체적인 율격 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 1구, 제 2구, 제 3구 모두 2음보로 이루어진다.

寶冠이 / 오나눌  
아바님 / 보시고  
짜해디여 / 우르시니 (其 57, 앞 행. /: 음보 표시)

둘째, 제 1구와 제 2구는 2음보로 이루어지고, 제 3구는 3음보로 이루어진다.

디나건 / 無量劫에

修行이 / 니그실씩

몸일우웁жат / 疑心이 / 업스시나 (其 53, 앞 행)

셋째, 제 1구와 제 2구는 2음보로 이루어지고, 제 3구는 4음보로 이루어진다.

外道人 / 五百이

善慧入德 / 님사바

弟子 | / 드외야 / 銀돈을 / 받즈불니 (其 6, 앞 행)

이러한 유형을 통해서 월인천강지곡의 한 행이 보여주는 율격적 특징은 제 1구와 제 2구는 2음보로 고정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제 3구는 2음보·3음보·4음보가 함께 나타나는 가변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 3구의 음보격이 가변성을 보이는 것은 아직 율격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과도기적 형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월인천강지곡은 음보율이 4음보격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어, 율격적인 측면에서 고려시대 시가와 조선시대 시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율격적 특징은 용비어천가에서도 똑 같이 찾을 수 있다. 결국 월인천강지곡이 보여주는 형식적 특징은 용비어천가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더불어 악장형식의 완성형으로서의 시가사적(詩歌史的)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 5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함께 악장 시가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평가는 월인천강지곡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 여러 면에서 용비어천가와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적 유사성이다. 물론 노래의 순서를 ‘其一, 其二, ……」로 표기하여 ‘第一章, 第二章, ……」로 표기한 용비어천가와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첫 째 장(章)인 其一은 한 행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장들은 두 행으로 이루어지는 시행(詩行) 구성 방식은 제 1장은 한 행으로 이루어지고 제 2장부터는 두 행으로 이루어지는 용비어천가의 그것과 동일하다. 또 其一과 其二에서는 석가 공덕의 위대함을 전체적으로 노래하고 석가의 구체적 사적은 其三에서부터 노래하는 내용 전개 방식은 제 1장과 제 2장에서 6조(六祖) 사적의 위대함과 나라의 번영을 전체적으로 기원하고 6조의 구체적 사적은 제 3장에서부터 노래하는 용비어천가의 방식과 동일하다.

이처럼 월인천강지곡은 시가(詩歌)로서의 여러 특징들이 용비어천가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사실은 월인천강지곡이 용비어천가를 전범으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이 월인천강지곡을 용비어천가와 더불어 악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잡게 하였다고 하겠다. 결국 월인천강지곡은 석가의 일대기라는 불교적 내용을 용비어천가에서 이루어진 영웅서사시적 전통으로 노래한 불교서사시라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월인천강지곡(상)』(1962), 통문관.

박병채(1991), 『논주 월인천강지곡』, 세영사.

허웅·이강로(1962), 『주해 월인천강지곡』, 신구문화사.

고영근(1993),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월인석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김완진(1972), 「세종대의 어문정책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 제3집, 성곡학

술문화재단.

사채동(1982), 「월인천강지곡의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 제11집, 어문연구회.

\_\_\_\_\_ (1982), 「월인천강지곡의 불교서사시적 국면」, 황패강 외 3인 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이호권(2001),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태학사.

정병욱(1983),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조동일(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조홍욱(2002), 「월인천강지곡의 형식에 대하여」, 김학성·권두환 편, 『신편 고전시가론』, 새문사.